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믿음의 의

[창세기 15: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異像)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너의 상은 매우 크도대(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액센트; NASB).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였다. 이상(異像)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던 옛날의 방식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나 이상 등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민 12:6).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이상 중에 하나님을 뵈옵게 되니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마 북방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말씀하셨다. 방패는 전쟁에서 적군의 칼과 창을 막는 무기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시 18:2).

하나님께서서는 또 아브람에게 “너의 상은 매우 크도대”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아브람이 조카 롯을 위해 행한 헌신적 수고와 전쟁노획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선한 행위에 대해 큰 상을 주기를 원하셨다. 사람의 선행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상을 주신다.

[2-5절]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無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람은 자

기 집에서 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3절에 ‘내 집에서 길러온 자’라는 원어는 ‘내 집의 아들’이라는 말이며 영어성경들은 ‘내 집에서 난 자’라고 번역하였다(KJV, NASB). 그는 아브람의 집에서 종으로 나서 길러온 자이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아니며, 그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지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을 그의 의(義)로 간주하셨다. 그는 아브람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의로 간주하지 않으셨고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간주될 만큼 완전치 못하며 부족투성이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브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의 본이 되었다(롬 4:1-3).

아브람의 믿음은 컸다. 그는 그와 그의 아내가 늙었고 자녀 출산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로마서 4:19-21,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였으니.”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 그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2:1에 기록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하란에서가 아니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나 그의 부친 데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창 11:31). 이 사실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레위인들의 기도에서도 고백되었다. 느헤미야 9: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11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술개가 그 사체(死體)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증의 표를 요청했다. ‘무엇으로’(반마)라는 말은 그의 불신앙을 나타내기보다 믿음을 위한 확증의 표를 구한 것이다. 훗날에 기드온이나 히스기야도 비슷한 요청을 하였다(삿 6:37; 왕하 20:8).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3년된 암소, 3년된 암염소, 3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 중간을 쪼개었다. 제물의 중간을 쪼갠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어느 한 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었던 것 같다(렘 34:18-20). 술개가 제물의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그것을 쫓았다.

[12-14절]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懲治)[심판,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이루어졌다. 당시에 그들은 애굽에서 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였고(출 2:23-24), 그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왔고(출 12:40),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출 12:35-36).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또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장사되리라(원문, KJV).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사람의 영혼이 몸의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어떤 장소에 모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영혼불멸에 대한 한 증거이다. 사람은 몸을 가진 자일 뿐 아니라, 불멸적인 영혼을 가진 자이다. 영혼은 몸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 집결된다. 성경은 그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며,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몸의 부활 때까지 쉬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증거한다(눅 16:19-31).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라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굽이 애굽에 내려간 때로부터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에 이르는 4대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대표하였다(창 48:22; 왕상 21:26; 암 2:9-10). 아브람은 당시에 아모리 족속 곁에 살고 있었다. 창세기 14:13은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르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더라”고 말한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는 말씀은 오랜 후에 있을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곳 거주민들의 죄악의 많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을 암시한다. 과연, 레위기 18:24-25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심히 음란한 일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질 것이었지만 그대로 성취되었다.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의 약속도 꼭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7-21절] 해가 저서 어둠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쪼갠 제물들 사이로 지나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 같다(출 3:2). 그것은 아브람이 하나님께 요청한 하나님의 표징이었다. 그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의 경계와 당시에 거기 살고 있었던 열 족속들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그 경계까지 거의 영토를 확장했었다(삼하 8:6, 14; 왕상 4:21, 24).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시다. 그는 자신이 아브람의 방패이며 아브람의 상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환난과 시험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은 크다. 예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계 22:12). 우리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약속하신 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의와 선을 행하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의 복을 주셨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간주하셨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는 이치도 비슷하다.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복된 기업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경계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거하는 열 족속들을 언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금 하늘에 간직된 기업(벧전 1:4)을 약속하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바르고 충성되게 살자.

주일오후설교 첫 번째 인구조사, 진영들의 배열

민수기도 모세가 쓴 책이다. 모세는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자격자이

었고 그 시대도 그러하였다. 본서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 때문에(민 1, 26장)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민수기의 특징적 진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다.

[민수기 1:1-4]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 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했었고(출 40:2, 17) 한 달 후 제2년 2월 1일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졌다. 회막(會幕)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다. 회막이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레 1:1; 민 1:1; 7:89). 하나님의 명령은 인구조사에 관한 것이었다. 인구조사의 총책임은 모세와 아론이었고 각 지파의 대표인 열두 명의 족장들이 그들을 도와 그 일을 행할 것이며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었다.

[5-19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5-19절은 각 지파의 대표자인 열두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20-43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44-46절]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더라.

20-46절까지는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열두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가 603,550명이었다고 기록하였다.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고, 그 대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로 계수되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는 601,730명으로서 처음 인구조사의 총수와 비슷했고 단지 1,820명이 적었다.

[47-54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레위 사람들은 그 징집 가능 인원의 총수에서 제외되었고 레위인들은 증거막(10계명이 든 법궤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

반하고 봉사하고 장막 사면에 진을 치고 그것들을 지키고 외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 레위 지파의 직무는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외인들,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셨다. 죄인들은 속죄제물의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를 섬길 수 없었다.

민수기 2장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약 60만명이 넘는, 큰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진영들로 나누어 거하고 또 이동할 때 질서정연하게 행진하였음을 증거한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2절 끝에 ‘대하여’라는 원어는 ‘좀 떨어져서, 약간 거리를 두고’라는 뜻이다(BDB, KJV, NASB, NIV).

[3-9절]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들은 크게 넷으로 나뉘었다. 각 진마다 깃발(데겔 7:7)(standard)을 달았다. 그것이 진기(陣旗)이었다. 동쪽을 맡은 제1진기(陳旗)는 유다 진기(陳旗)로서 유다 지파, 잇사갈 지파, 스블론 지파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아람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다. 제1진기의 총수는 186,400명이었다.

[10-16절] 남편(南便)에는 르우벤 군대의

남쪽을 맡은 제2진기는 르우벤 진기(陣旗)로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레아의 두 아들과 그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의 자손들이다. 제2진기의 총수는 151,450명이었다.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기를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회막은 레위인의 진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진들의 중앙에 있었다.

[18-24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서쪽을 맡은 제3진기(陳旗)는 에브라임 진기(陳旗)로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다 라헬의 아들들과 손자들이다. 제3진기의 총수는 108,100명이었다.

[25-31절]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陣旗)가

북쪽을 맡은 제4진기(陳旗)는 단 진기(陳旗)로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둘(단, 납달리)과 레아의 여

종 실바의 아들 하나(아셀)의 자손들이다. 제4진기의 총수는 157,600명이었다.

[32-34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총수는 603,550명이었다. 만일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200만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민수기 1-2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짓기 전에는 시나산에서 말씀하셨었다(출 19:19). 그러나 회막을 지은 후에는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레위기 1: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1:1, “여호와께서 시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구약시대의 회막(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2:21,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함입어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섬긴다. 예수께서는 ‘말씀’이라고 불리셨다(요 1:1). 그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눅 16:29; 딤후 3:16).

또 구약의 성막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뜻도 있다. 고린도전서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는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립되었고(엡 2:20)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딤후 3:15). 물론 이것은 바른 교회를 가리킨다. 신약시대에 바른 교회는 언제나 성경의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바른 교회의 성경적 교훈을 통해 말씀하신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진행하였다. 회막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었다(민 2:17).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보인다.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구약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며(딤후 3:15)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이 된다(딤후 3:16). 또 바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경적 교훈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함 같이, 신구약성경과 바른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